

The Mæssage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의 허계영 번역 version)

요한복음



여기에 실린 그림들은 '허계영의 성경의 맥과 핵 세미나' 교재용으로
허설영(저희 큰언니)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것입니다. 무단 복제를 삼가 주세요.

1장

생명의 빛

¹⁻²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³⁻⁵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어요.

그분이 없이 생겨난 건 하나도, 단 하나도 없었죠!

생명이 존재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야 할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타올랐고, 어둠은 이 빛을 없애지 못했죠.

⁶⁻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은 '이 생명의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사람들이 어디를 봐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려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한이 그 빛은 아니에요. 요한은 단지 '빛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려 온 것뿐이죠.

⁹⁻¹³ 이 생명의 빛은 실존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빛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건만, 그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을 환영하고,

'요한이 얘기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를 갖게 해 주셨어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신이나, 성행위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랍니다.

¹⁴ 이 말씀이 살과 피가 되셔서,

우리 마을로 이사 오셨어요.

우린 우리 두 눈으로 직접 그 영광을 봤어요.

단 하나뿐인 영광을 말이에요.

아버지를 똑 닮은 아들의 영광을 말이에요.

완벽하게 은혜로우시고, 완벽하게 진실하신 영광을 말이에요!

15 요한이 그분을 가리키며 외쳤죠.

“바로 이분이오! 내가 내 다음으로 오실 거라고 말했던, 하지만 실상은 나보다 앞서 계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란 말이오! 이분은 늘 나보다 앞서 존재하셨고, 나보다 앞서 말씀하셨소.”

16-18 우리 모두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 얹혀 살지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지요.

모세의 때엔 우리가 기본만 받아 누렸지만

지금은 이 풍성한 은혜를 주고받고 있지요.

이 한없는 이해와 깨달음은 모두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왔답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죠.

언뜻 스치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깊숙이 존재하시는 이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현현(顯現 나타나심)으로서,

하나님을 확실하고도 뚜렷이 보여주셨답니다.

광야의 천둥소리

19-20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요한은 대답을 회피하지 않고, 사실대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난 메시아가 아닙니다.”

21 그러자 사람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신가요? 엘리야인가요?”

“아니오.”

“그럼 선지자?”

“아니오.”

22 그러자 사람들이 열 받아 말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신가요? 우릴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하나요? 당신에 대한 얘기 뭐라도 좋으니 대답 좀 해 주시오!”

23 “나는 광야의 천둥소리라고. 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닦아라!’라고 설교했던 걸 실행하고 있지요.



24-25 그들을 보낸 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들이 자신들의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면 왜 세례를 주는 겁니까?”

26-27 요한이 대답했어요.

“난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요.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한 분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내 다음으로 오실 거요. 그렇다고 그분 지위가 나보다 낮단 얘기가 아니요. 난 감히 그분의 외투를 들어 드릴 자격도 안 된다고요.”

28 요한은 당시 요단강 서쪽,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29-31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오시는 걸 보고 큰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바로 그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이 오십니다! 이분은 세상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분이 내가 내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라요. ‘내 다음에 오시지만, 실상은 나보다 앞서 계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내 비록 이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지요. ‘이스라엘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현현(顯現 나타나심)이시란 걸 깨닫도록 준비시키는 것, 딱 여기까지가 내 임무’라는 사실 말ियो. 이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새출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찌든 죄가 벗어지도록 깨끗이 씻겨 주는 게 바로 내가 세례를 주는 이유란 말ियो!”

32-34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의 증언을 확실히 했어요.

“난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저분 안에 편안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저분에 대해 아는 건 딱 한가지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권세를 내게 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성령이 내려와 머무시는 분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거라.”

그런데 내가 바로,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봤다요. 내 확언컨 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소!”

와서 자네 두 눈으로 직접 보게!

35-36 다음날, 요한은 이 모든 걸 지켜본 자기의 두 제자를 데리고 처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했죠.

“그분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이!”

37-38 그 두 제자는 요한의 얘길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자네들은 뭘 찾고 있는가?”

그러자 그들이 말했어요.

“랍비님(선생님이란 뜻이죠), 어디에 묵고 계시나요?”

3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랑 같이 가세. 가서 자네들 눈으로 직접 보게나.”

그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가 봤어요. 그리고 온종일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죠. 때는 늦은 오후였어요.

40-42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나선 요한의 두 제자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을 확인하자 마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곧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자네, 요한의 아들 시몬 맞지? 이제부터 자네 이름은 게바(베드로, 반석)일세.”

43-44 다음 날,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에 가기로 하셨어요. 갈릴리에 도착하신 후, 빌립과 마주치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날 따르게.”

(빌립의 고향은 벳세다로, 안드레, 베드로와 고향이 같았어요.)

45-46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서에서 얘기했던 그분,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지 뭔가? 그분은 나사렛 출신인데, 요셉의 아들로, 성함은 예수야!”

나다나엘이 말했어요.

“나사렛이라고? 자네 지금 장난하나?”

하지만 빌립이 말했어요.

“와서 자네 두 눈으로 직접 보게.”

47 예수님께서서는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오는구나.”

48 나다나엘이 말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선생님은 절 모르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자네 여기로 부르기 한참 전에, 자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걸 내가 봤다네.”

49 나다나엘이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랍비님, 랍비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50-51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걸 봤다’고 말해서 믿게 된 건가? 자네가 본 건 아무 것도 아니라네. 머잖아 자네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人子, the Son of Man)에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도 보게 될 걸세.”



2장

물이 와인으로....

1-3 3 일 후, 갈릴리 지역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객으로 초청받아 갔지요. 그런데 결혼식 피로연에 쓸 와인이 떨어져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피로연 와인이 거의 바닥났다는구나.”

4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게 우리-어머니나 저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절 다그치지 마세요.”

5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앞장서서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가 뭐라 하든, 그대로들 하시게.”

6-7 거기 여섯 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건 유대인들이 정결의식 용도로 쓰는 것이었어요. 항아리 하나가 75~110 리터 정도의 크기였지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지시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그러자 하인들이 항아리마다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8 “이제 주전자에 채워 피로연 담당 매니저에게 갖다 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인들이 그대로 이행했어요.

9-10 피로연 매니저가 와인으로 변한 물을 맛보더니 신랑에게 소리쳤어요. (방금 있었던 일을 하인들은 물론 알았지만, 피로연 매니저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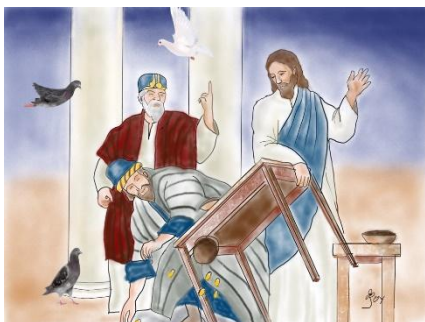
“내가 알기로, 보통 처음엔 최상급 와인을 내지만, 하객들이 취하기 시작하면 싸구려 와인을 내는데, 자네는 최상급 와인을 지금까지 간직해 뒀구먼!”

11 갈릴리 지역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예수님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어요. 이 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12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며칠간 머무셨어요.

이 성전을 철거하시오....

13-14 유대인들이 봄마다 지키는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성전 가득, 소며, 양이며,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걸 보셨어요. 고리대금업자들 역시 다 성전에 나와 있었죠.



15-17 예수님께서서는 가죽띠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양과 소가 우루루 도망가고, 고리대금업자들의 가판대가 뒤집히고, 동전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비둘기 장수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짐 싸가지고 여길 나가시오. 내 아버지 집을 장터로 만드는 짓은 당장 그만 두란 말이요!”

그때 제자들은 '당신 집을 향한 내 열정이 나를 사로잡나이다'라는 성경구절이 떠올랐어요.

18-19 열 받은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해도 된다고 허락해 줬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철거하시오. 그럼 내가 3 일 안에 복원시키리다."

20-22 사람들은 분에 겨워 말했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 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이걸 3 일 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을 성전에 빚대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 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매치해가며, 비로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고 믿게 되었죠.

23-25 유월절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보여 주시는 표적들이 하나님을 나타냄'을 깨닫고는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의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 정확히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실 수 있었으니까요.

3장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1-2 바리새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탁월한 리더급 인사였어요.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말했어요.

"랍비님, 랍비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란 사실을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랍비님처럼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3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말이 확실히 맞소. 날 믿으시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지 않는다오."

4 니고데모가 말했어요.

“이미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일이잖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요?”

5-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그대가 내 말을 잘 안 듣고 있구먼. 다시 얘기해 주겠소. 사람이 원래의 창조-‘수면 위에 운행하신 바람’의 창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 새로운 생명을 낳는 세례-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오. 아기를 한 번 예로 들어 보리다. 아기의 몸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 않소? 하지만 내면에 존재하는 인격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무엇-곧 성령-에 의해 만들어져, 살아 있는 영이 된다오.

7-8 그러니 이 세상이 아닌, 소위 (이 세상과는 다른)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새삼 놀랄 것 없소. 바람이 여기저기로 부는 걸 잘 알지 않소?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 사이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 않소? 바로 그렇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람, 즉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라오.”

9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전 도통 알아듣질 못하겠군요.”

10-12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인데, 이런 기본도 모른단 말이오? 잘 들어 보시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명확한 진리요. 내가 몸소 체험해서 알게 된 걸 얘기하는 거라오. 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만 증언하니까.... 간접경험을 한 거나 전해 들은 게 아니란 말이오.... 그런데 그대는 증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않고, 질문이나 하면서 망기적거리고 있으니.... 손바닥 보듯 확실한 걸 얘기해 줘도 날 믿지 못하니...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얘기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13-15 인자(人子, the Son of Man)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려오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없는 법이라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게 했듯이,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할 것이오. 그래서 인자를 보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요.

16-18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 그것도 단 하나뿐인 외동아들을 주셨다오. 왜 그러셨는지 아시오? 누구든 그를 믿음으로써, 아무도 멸망 당할 필요가 없도록,



그래서 온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라오.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해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도와주고,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 온 거라오. 누구든 그를 믿으면, 무죄판정을 받지만, 믿기를 거부하면, 내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사형선고를 받은 채로 있게 되는 거요. 왜 그런 줄 아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19-21 우리가 처한 위기가 바로 이와 같소.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향해 달아났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저 악을 행하는 데에만 이골이 난 그들은 부정과 망상에 중독된 채, 본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고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거라오. 하지만 진리와 진실 가운데 살면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환영한다오.”

신랑의 친구

22-26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시골 마을로 가셔서 쉬셨어요. 그러면서 세레도 베풀셨죠. 요한 역시 살렘 근처의 애논에서 세레를 베풀었어요. 거기엔 물이 많았거든요. 당시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세레의 본질에 대해 종종 논쟁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어요.

“랍비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랍비님과 함께 있던 그분 아시죠? 랍비님께서 증언하시고 인정해 주던 바로 그분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라이벌이 됐지 뭐예요? 글썄 그분도 세레를 베풀고 있다지 뭐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오고, 다 그분한테 가고 있다구요.”

27-29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이 성공-내가 말하는 영원한 성공-할 수는 없는 법! 내가 전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난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메시아가 오시는 걸 준비하기 위해 보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걸 자네들도 다 듣지 않았는가? 신부를 얻는 것은 당연히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는 들러리-그게 바로 나야, 나!-로서, 신랑 옆에 서서 신랑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기뻐하지. 들러리가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신부의 결혼생활이 순탄하게 시작된 것’을 보고, 어찌 질투할 수 있겠는가?

29-30 내 잔이 넘쳐흐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지금이 바로 그분이 무대 중앙에 등장하시고, 난 무대 뒤로 사라지도록 예정된 순간이라네.

31-33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이야 말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에 매여 땅의 말을 할 뿐이지만,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은 소속 자체가 다르시다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걸 증언하시지. 아무도 이런 사실에 관심이 없지만, 이 증거를 잘 살펴보면 누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라는 사실에 목숨을 걸게 되지.

34-36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어.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배급품처럼 나눠주시리라고는 생각지 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걸 양도하시고, 아들이 선물(성령-역자 주)을 아낌없이 나눠주도록 하셨다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것, 즉 완벽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지. 하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볼 수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온통 어두움, 끔찍한 어두움일 뿐이지...."

4장

우물가의 여인

1-3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카운트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 쪽 점수가 더 높다'고 광고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이랑 요한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시골마을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오셨답니다.

4-6 갈릴리로 가시려면, 먼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만 했기에,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랑 접경지역이라서, 야곱의 우물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쳐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때는 정오였지요.

7-8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물 한 잔만 주겠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심거리를 사러 마을에 가고 없었어요.)

⁹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유대인이신 분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죽어도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¹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 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내게 마실 물을 청했을 거요. 그럼 내가 신선한 생수를 줬을 텐데....”

¹¹⁻¹² 그러자 여인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이 생수를 길으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고, 그 아들들이랑 가축들한테도 물려줬던 게... 이렇게 우리한테까지 전해내려 왔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란 말인가요?”

¹³⁻¹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또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목 마르지 않을 거요.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절로 솟아나는 샘,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테니까....”

¹⁵ 여인이 말했어요.

“선생님, 그 물을 저한테도 좀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요.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길으러 올 필요가 없도록 말예요!”

¹⁶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대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¹⁷⁻¹⁸ “전 남편이 없는데요?”

여인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오. 그대한테 남편이 없다는 게 맞소. 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그대의 남편이 아니니... 맞는 말이오.”

¹⁹⁻²⁰ “어머! 맞죠...? 선지자... 맞죠? 그럼 한 가지만 여쭙 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²¹⁻²³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시오. 언젠가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데서 아버지를 예배할 날이 올 거요. 당신들은 어두울 때 미심쩍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예배하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을 통해 열린 게 사실이오. 하지만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을 날이 오고 있소. 아니, 실은 이미 왔소.

²³⁻²⁴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라오. 그대의 영이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시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며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요. 자기의 영혼을 담아, 참된 자아로, 경외심을 가지고 말이오."

²⁵여인이 말했어요.

"그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언젠가 메시야가 오실 거라는 건 알아요. 메시야가 오시면 모든 게 완전히 이해되겠죠."

²⁶"내가 바로 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메시야를 기다리면서 여기저기 기웃댈 필요 없소."

²⁷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류'의 여자와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 쇼크였죠. 비록 아무도 드러내 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들 표정에 이런 생각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표정관리 안 되는 제자들^^)

²⁸⁻³⁰여인은 눈치를 채고 황급히 떠났어요. (눈치 백단^^) 그러다 너무 당황해서 물동이라도 놓고 갔지 뭐예요? 하지만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과거에 대해, 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메시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러 나왔답니다.

지금은 추수철

³¹그 사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그쳤어요.

"랍비님, 어서 드세요. 식사 안 하실 거예요?"

³²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겐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단다."

³³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나...?'하며 의아해했어요.

³⁴⁻³⁵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 살리는 음식은 날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란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짓는 거지. 주위를 한 번 둘러 보렴. 4 개월 후면 곧 추수철이지? 너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한 번 봐. 이곳 사마리아 밭이 무르익었구나. 추수철이 되었다구!”

36-38 추수하는 일꾼은 머뭇대지 않아. 자기 품삯을 받은 대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잘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잖니? 그리고 씨뿌리는 사람이랑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팔짱을 끼고 기뻐하잖아? 물론 ‘씨 뿌리는 사람 따로, 거둬들이는 사람 따로’라는 말이 맞아. 난 너희가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곳에 너희를 보냈단다. 너희는 손 하나 까딱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꾸며 수고한 밭에 들어갔지.”

39-42 ‘내 과거랑, 나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라는 여인의 간증을 들은, 그 마을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더 머무시라고 부탁하자, 예수님께서는 이틀간 더 그곳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했지요. 그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귀로 직접 들어 확실히 알게 되었다오! ‘이분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말ियो.”

43-45 이틀 후 예수님은 갈릴리를 향해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가 자란 곳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게 웬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에 놀랐기 때문이었죠.

46-48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물을 와인으로 만드셨던 곳-로 가셨어요. 당시 가버나움에 왕실대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 대신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다’는 얘길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제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내려오셔서 제발 고쳐 주세요’라고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발 물러서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구료.”

49 그런데도 그 대신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 내려와 주세요! 제 아들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50-51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소.”

그 대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하인들이 와서 길을 막으며 말했어요.

“아드님이 살아났습시다요!”

52-53 대신은 하인들에게 아들이 몇 시쯤 좋아졌는지 물었어요. 하인들이 대답했어요.

“어제 오후 1 시쯤 열이 떨어졌습죠.”

아이 아버지는 그 시각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이 살았소’라고 하신 때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53-54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대신뿐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두 번째로 베푸신 표적이었어요.

5 장

안식일인데도....

1-6 곧 또 다른 명절이 돌아와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의 양문(羊門) 근처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가에는 다섯 개의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는 수백 명의 병자들-시각장애인, 절뚝발이, 마비 환자 등-이 있었죠. 그 가운데 38 년간 장애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이 연못가에 누워 있는 걸 보시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는지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병에서 치유 받고 싶소?”

7 그 아픈 사람이 말했어요.

“선생님, 제게는 물이 요동쳐도,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기 가도, 어느새 다른 사람이 벌써 물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8-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대 들것을 갖고 걸어가시오.”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이 치유되어 자기 들것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9-10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지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치유 받은 사람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들것을 들고 다니면 안 되지!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지.”

11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날 치유해주신 분이 ‘들것을 갖고 걸어가시오’라고 말씀하셨소.”

12-13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어요.

“누가 그걸 들고 걸어가라고 당신에게 명했던 말이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군중 틈으로 몸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는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14 잠시 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보이는구려! 이제 다 나왔구려! 이제는 최악된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요. 그럼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단다.”

15-16 그 사람은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어요.

17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이렇게 변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늘 일하고 계시단다. 나도 마찬가지고....”

18 그러자 이번엔 그들이 정말 더 열 받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드러내 놓고 공격하는 걸로 모자라 죽이고 싶어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들도 한다.

19-20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확실히 설명해 주겠소. 아들은 그 어떤 일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지 못한다오. 오로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할 뿐이오.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들도 한단 말이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아들을 끼워 주신다오.

20-23 하지만 그대들은 아직 절반도 못 봤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똑같이 한다오.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생명을 준다오. 아들이랑 아버지는, 그 어떤 사람도 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법이 없소.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 주셨소. 그래서 아들을 모독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요. 왜냐하면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시니까....

24 이걸 정말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중요한 문제니 잘 들으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믿고, 아버지와 한 편이 되는 사람은, 사실 내게 삶을 의탁한 것이기에, 바로 이 순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오. 또한 더 이상 외부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도 않게 될 거요. 그 사람은 죽은 자의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의 세상으로 훌쩍 건너 뛴 것이라오.



25-27 이걸 꼭 깨달아야 하오. 때가 됐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오! (농담이 아니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거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을 아들 안에도 넣어 주셨소. 또한 아들이 인자(人子, the Son of Man)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재판권과 집행권도 주셨소.

28-29 이 사실에 뭐 그리 놀랄 필요는 없소. 죽어서 묻힌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다가오고 있소. 그 날이 오면 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부활의 삶'으로 들어갈 것이오. 하지만 그릇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맞게 될 거요.

30-33 나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소. 난 듣는 대로 결정할 뿐이오. 그대들이 날 믿어도 되는 이유는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기 때문'이오. 만약 내가 그저 내 맘대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자기증언에 불과할 거요.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증인-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 날 위해 증언해 주신다오. 더욱이, 그대들은 요한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의 말을 직접 듣기도 하지 않았소? 요한이 나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전문가적 증언을 하지 않았난 말이오.

34-38 하지만 내 목적은 그대들의 인기를 얻는 데 있지 않소. 내가 지금 단지 사람의 증언에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오. 내 목적은 '그대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소. 요한은 밝게 빛나는 햇불이었소. 그래서 그대들은 요한의 밝은 불빛 아래서 잠시동안 춤추며 즐거워했던 거요. 하지만 날 정말로 증언해 주는,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중요한 증언이 있소.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오. 내가 완수하려는 이 사명 자체가 '아버지께서 정말로 날 보내셨다'는 증거요. 날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날 증언해 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소. 그대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도 없소. 그대들이 아버지의 '메시지(Message)'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신(Messenger)'을 무시했기 때문이오.

39-40 그대들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끊임없이 들이 파지만, 사실 그대들은 나무만 볼 뿐, 숲을 보지 못하고 있소. 이 성경 전부가 다 **나**에 관한 것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그대들 바로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이 그토록 받고 싶어한다는 생명을, 내게서 받길 거부하고 있으니.... ππ

41-44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오. 난 그런 것엔 전혀 관심 없소. 웬지 아오? 난 그대들, 군중을 잘 알기 때문이오. 나는 그대들이 벌이는 활동에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소. 내가 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왔는데도, 그대들은 날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소? 만약 자기를 내세우는 누군가가 왔다면, 그대들은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했을 거요. 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라이벌과 경쟁하면서 순위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소? ππ

45-47 하지만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대들을 고발하려 한다고 생각지는 마시오. 내가 아니라, 그대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모세가 오히려 그대들을 고발하고 있으니까.... 그대들이 모세가 한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도 믿을 텐데....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내용은 다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오. 그대들은 **모세가** 기록한 것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한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소?"

6장

모두를 위한 빵과 물고기

1-4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디베라라고도 불리는)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에 매료되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르시자, 예수님께서 동산에 올라 앉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둘러앉았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유월절 직전이었어요.

5-6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군중이 따라온 걸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줄 빵을 어디서 사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키워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하셔야 할지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7 빌립이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빵을 다 사주려면 은화 200 냥도 모자랄 걸요?”

8-9 제자 중 하나-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했어요.

“저기 보리빵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긴 한데요, 그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갈 걸요?”

10-11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앉혀 보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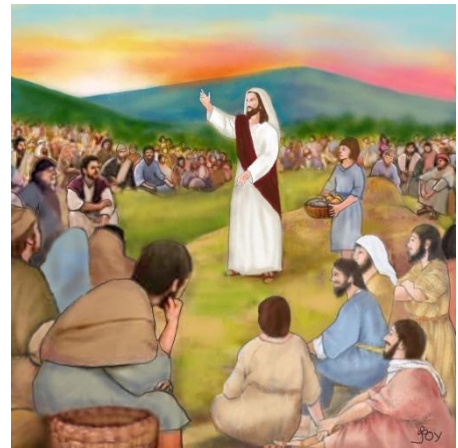
거기엔 푸른 잔디 카페트가 멋지게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잔디 위에 앉았는데, 대략 5 천 명은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 같이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어요. (2 천년 전 무한리플 식당!^^)

12-13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허비되지 않도록 남은 걸 다 모으거라!”

제자들이 남은 걸 모아 보니, 보리빵 다섯 개에서 나온 남은 음식이 큰 광주리로 12 개나 됐어요.

14-15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분은 선지자가 틀림없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때맞춰 갈릴리에 나타나신 거라구!”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열광하여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는 걸 보시고, 거길 슬그머니 빠져 나오셔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 홀로 계셨어요.

16-21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먼저 건너갔어요. 어느새 꽤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계셨어요. 그때 폭풍이 일어, 바다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약 5-6km 정도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게 보였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라, 순간 얼음이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나!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위로 모셨어요. 배는 곧 육지 근처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22-24 이튿날, 군중은, 전날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로 가는 걸 분명히 봤었거든요. 그때 디베라에서 오는 배들은 ‘주님께서 축복하신 빵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곳’ 근처에 정박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 걸 알고, 예수님을 찾으러 디베라에서 온 배에 끼어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25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느새 바다를 건너오신 걸 보고는, 말했어요.

“랍비님, 어느새 여기 오셨어요?”

2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날 찾아온 까닭은 내가 행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배불리-그것도 공짜로-먹여 줬기 때문인 것 같구료.

생명의 빵

27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에 안간힘을 쏟아가며 목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먹이는 음식, 즉 인자(人子, the Son of Man)가 주는 음식을 얻기 위해 애쓰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인자가 행하는 것을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오.”

28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2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예수님 자신-역자 주)에게 올인하시오. 그런 헌신으로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오.”

30-31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건지, 작은 힌트라도 좀 주세요! 우리도 상황파악이 먼저 좀 돼야, 헌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능력을 좀 보여 주시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빵을 먹여 준 것처럼 말예요. 성경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으로 모세가 사람들을 먹였다’고 쓰여 있잖아요?”

32-3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의미는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줬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빵, **진짜 빵**을 그대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오.”

34 그러자 사람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 빵을 좀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 주세요!”

35-3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오. 내 편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될 거요. 내가 그대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말하는 이유는, 그대들이 내가 행하는 걸 보고도 날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결국엔 다 날 향해 달려오게 돼 있소. 그리고 일단 내게로 온 사람은 내가 꼭 붙들고 절대 놓지 않을 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단지 내 기분(whim)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날 보내신 분의 뜻(will)을 완수하기 위해서라오.

39-40 간단히 말해서, 아버지의 뜻은 이거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걸 마지막 하나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마지막 날에 만물과 만인을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요. 그대들이 ‘아들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믿어, 그와 한 편이 됨으로써 **진정한 생명(real life)**,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오. 이 모든 게 완성될 때까지 그대들이 온전한 생명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소.”

41-42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따지고 들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냐? 이 사람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지?”

43-46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 두고 떠들어댈 필요 없소. 이 세상 책임자는 그대들이 아니고 날 보내신 아버지니까. 사람들을 내게 데려다 주시는 분도 아버지시라고. 그것만이 그대들이 내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यो.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만, 내가 나의 일-사람들을 모아 바로 세우고, 종말에 대비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1:1 과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말의 성취요. 나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1:1 과외를 받는 사람이야 말로, 아버지께 진심으로 귀기울여 가며 열과 성을 다해 배우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아버지를 직접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거요. 난 이 가르침을 아버지께 직접 받았다고.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예수님 자신-역자 주) 말고는 이제껏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소. 그런데 그대들은 지금 그런 날 보고 있지 않소?

47-51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최고의 진리를 말해 주겠소.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그대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빵’을 먹었지만, 결국 다 죽었소. 하지만 지금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빵이 있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생명의 빵-이 바로 나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게 될 거요! 내가 세상에게 줘서, 세상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줄 빵은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오. 바로 내 살과 내 피가 (영원히 살게 해 주는) 빵이란 말이오.”

52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끼리 서로 언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살코기로 우리에게 요리를 해 주겠다니..., 이게 도대체 뭘 소리야?”

53-58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 인자(人子, the Son of Man)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대들 안에 생명을 갖게 될 거요. 그렇게 왕성한 식욕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야 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요. 왜냐하면 내 살이 진정한 음식이고, 내 피가 진정한 음료니까.... 그대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소. 나 또한 그대들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온전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날 이 땅에 보내셨소. 내가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게 되는 거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यो. 그대 조상들은 만나빵을 먹었지만 결국 다 죽었소. 하지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거요.”



59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였어요.

너무 딱딱해서 소화를 못하겠네.

60 예수님 제자 중 많은 수가 이 말씀을 듣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어려워! 너무 딱딱해서 소화를 못하겠네.”

61-65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 얘기에 다 나가 떨어진 거야? ‘인자(人子, the Son of Man)가 왔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 성령만이 생명을 만드실 수 있단다. 물리적인 힘이나 의지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 내가 너희에게 해 준 얘기는 다 성령의 말씀이야.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너희들 중 몇몇은 내 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중 일부가 예수님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내가 내내 해 오던 얘기야. 자기 힘으로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티켓을-역자 주) 선물로 주셔야만 내게 올 수 있지.”

66-67 이 말씀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들도 떠나고 싶니?”

68-69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 주님께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린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헌신했는 걸요?”

70-71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 12 명을 직접 선발했는데도, 너희 중 하나는 마귀구나!”



그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인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어요. 12 명 중 하나였던 이 사람은 그때 이미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에 돌입했답니다.

7장

1-2 그후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에 유대 쪽으로는 가지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명절인 장막절(초막절, 수장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3-5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했어요.

“형, 이번 명절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 제자들한테 형이 하는 일을 좀 보여주지 그래? 대중적인 명성을 노리는 사람이, 무대 뒤에 숨어서 일하면 안 되지. 형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하려면, 무대에 등장해서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게 낫지 않겠어? 형이 이 일을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면, 대중 앞에 드러내 놓고, 지금 하는 일을 세상에 알리라구!”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등 떠밀며 압박을 가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6-8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대답하셨어요.

“날 자꾸 떠밀지 마.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너희들 때지. 언제나 너희들 때라구. 너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잖아? 너희는 세상이 대적하지 않지만, 난 대적하잖아. 내가 그들이 숨기고 있는 악한 것들을 다 폭로하니깐 세상이 날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라도 명절 지키러 올라가. 나 기다릴 것 없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구.”

9-11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신 후, 갈릴리에 계속 머무셨어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다 명절을 쇠러 떠난 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눈에 띄까 봐 조심하며 피해 다니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느새 ‘그 사람 어디 있지?’라고 수소문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12-13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은 착한 분이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냐, 사이비 약장수일 뿐이야’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류의 얘기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극할까 봐, 쉬쉬하며 은밀히들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14-15 그러다 명절이 절반 이상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의아했어요.



“이 사람은 가방끈이 짧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을까?”

16-1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만들어낸 말들이 아니요. 나는 날 보내신 분께로부터 나온 것만 가르친다요. 그분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걸 한 번 테스트해 보시오. 그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내가 급조해 낸 건지 분별할 수 있을 거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뭘 만들어내는 이유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오직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말한다고요. 모세가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 중에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려. 당신들도 그렇게 살면서 왜 날 죽이려는 거요?”

20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사람이 미쳤구먼!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यो? 이 사람 귀신 들렸네 그러!”

21-24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안식일에-역자 주) 기적을 행했다고, 당신들이 모두 열 받아서는... 지금도 내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있잖소? 당신들은 모세가 명한 할례-사실, 그건 모세가 명한 게 아니라 모세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지만-의 법에 따라 (생후 8 일된 아기에게) 설사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지 않소? 그게 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답시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어떤 사람 **몸의 전부**를 치유해준 걸로 화를 내다니, 이게 말이 되요? 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 들지 마시오. 뭐가 옳은지 분별하기 위해 머리를-제발 마음도!-쓰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옳은 게 뭔지 테스트해 보란 말ियो.”

25-27 그때 예루살렘 사람 몇 명이 말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을 맘껏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막질 않네? 그럼 지도자들도 실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우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데...?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 아닌감?”



28-29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그 말씀을 듣고 흥분해서 외치셨어요.

“그렇소. 당신들은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곳에서 오지 않았다고요. 또 내 맘대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진정한

군원(출신)은 날 보내신 분이요. 그런데 당신들은 날 보내신 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소. 하지만 난 그분께로부터 왔기에, 그분을 아는 거요. 그분이 날 여기로 보내셨단 말이요.”

30-31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궁리를 했지만, 예수님께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군중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기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메시야가 오신다 한들, 이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32-34 군중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선동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바리새인들이 긴장해서 대제사장들과 작당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자기네 경비병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당신들과 잠깐 동안만 함께 있을 거요. 그 다음에 날 보내신 분께 돌아갈 거요. 당신들이 날 찾아도, 찾지 못할 거요.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기 때문이요.”

35-36 유대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니, 어딜 말하는 거지? 혹시 그리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러 간다는 애긴가? ‘당신들이 날 찾아도, 찾지 못할 거요’란 말이랑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소’란 말이랑... 도대체 이게 다 뭘 소리여...?”

37-39 명절의 최고 절정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단호히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게 와서 마시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가득 차 흘러 넘치게 될 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셔서, 그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40-44 이 얘기를 들은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어요.

“이분이 그 선지자가 틀림없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야야!’라고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메시야가 갈릴리에서 날 리가 없잖아? 성경에도 ‘메시야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써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어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진 못했어요.



45 그때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도대체 왜 예수를 끌고 오지 않았나?'라고 물었어요.

46 경비병들이 대답했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셨나요? 그분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껏 본 적이 없다구요."

47-49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자네들도 그 우매한 백성들처럼 현혹당한 겐가? 우리 지도자들 중에 그자를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던가? 그자에게 현혹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무식하고 우매한 백성들이거늘! 쫓쫓... 이런 무지몽매한 인간들!"

50-51 그러자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소리 높여 말했어요.

"우리 법이 이렇게 1차 신문도 거치지 않고, 당사자 행위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यो?"

52-53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의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을 옹호하는 거요? 유사 이래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난 적이 있었는지, 성경이나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란 말ियो."

그리고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8장

돌로 쳐 죽이라고?

1-2 예수님께서서는 감람산 쪽으로 건너가셨다가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3-6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행위를 하다가 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 왔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여인을 세워 놓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뭔가 책잡힐 말씀을 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6-8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대며 괴롭혔어요. 예수님께서서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던지시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계속 쓰셨어요.

9-10 그 말씀을 듣고 나이든 사람부터 하나하나 꿈무늬를 빼며 달아났지 뭐예요? (ㄱㅁㄱ~^^) 결국 그 여인 혼자만 남게 됐죠. 예수님께서서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사람들이 다 어디 갔소? 아무도 그대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 같구료.”

11 “네, 주님!”

“나도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소.”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어요.

“갈 길을 가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시오.”



당신들은 이 모든 것에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소.

12 예수님께서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발부리가 걸려 넘어질 일이 없을 거요. 내게서 나오는 엄청난 빛 가운데 살게 될 테니 말ियो.”

13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어요.

“허어, 이 양반이 말만 번지르르 하구먼.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뭔가 확실한 걸 좀 더 보여줘야 우리도 믿을 거 아니요?”

14-18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뿐이라는 그대들 얘기, 맞소. 하지만 그 말이 진실되다는 걸 믿어야 하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소.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 당신들은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의존해서 매사를 판단하지만, 난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요. 설사 내가 그런다 하더라도, 난 내 알팍한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날 보내신 내 아버지의 광대하심 안에서 판단하니, 내 판단이 옳을 수밖에 없다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믿어도 된다-을 만족시키는 것 아니겠소? 당신들은 그걸 갖고 있소. 당신들은 ①나의 증언과 ②날 보내신 아버지의 증언, 이렇게 증언이 두 개나 있지 않소?”

19 그들이 말했어요.

“당신, 자꾸 ‘아버지, 아버지’ 해대는데, 도대체 그 잘난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यो?”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당신들은 지금 날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날 알아보지 못하고 있소.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 보기를 기대한단 말ियो? 당신들이 날 안다면, 그 즉시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거늘....”

20 이걸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어요.

21 예수님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당신들은 날 찾을 거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 모든 것에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소. 그러다간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거요. 당신들은 나와 함께 갈 수 없을 테니까....”

22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헐~! 이자가 지금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당신들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뭘 소리여?”

23-24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그저 세상에 얽매어 있지만(이 우매한 중생들이 뭘 알리요?!”) 나는 이 세상 너머와 연결돼 있다오. 당신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차원에서 살지만,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산단 말ियो. 방금 내가 ‘당신들이 이 모든 것에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소? 당신들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소. 지금 ‘내가 누구인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죄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거요. 당신들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란 말ियो.”

25-26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부터 내내 말했듯이, 난 당신들이 관심있어하는 것들에 대해 해 줄 말도, 당신들을 심판할 것도 많소. 하지만 내게 말과 행동을 지시하시는 분의 진실하심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을 해 줘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요. 당신들은 지금 그분께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내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날 보내신 분에게 시비를 걸고 있단 말ियो.”

27-29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복습이 중요!^^)

“당신들이 인자(人子, the Son of Man)를 높이 들어 올릴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요. 내가 이 말들을 지어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했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요. 날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하신다오. 그분은 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오. 또 그분은 ‘내가 그분으로 인해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알고 계신다오.”

30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믿게 됐어요. (이것이 복습의 효과!^^)

아들이 해방시켜 준다면....

31-32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 준 말대로 살면서 충성한다면, 그대들은 분명 내 제자가 될 거요. 그럼 그대들은 몸소 진리를 체험하게 될 거고, 진리가 그대들을 해방시켜 줄 거요.”

33 그들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소? 우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박당한 적이 없는데?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34-3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지금 정말 진지한데..., 죄의 삶을 선택하면 결국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된다오. 그게 바로 속박당하는 노예의 삶이오. 노예는 자기 뜻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덧없고 무력한 신분 아니오? 하지만 아들은 견고한 지위를 가지고 집안 일을 경영하는 법! 그래서 아들이 그대들을 해방시켜 줄 때, 비로소 영원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나도 잘 알지.... 하지만 내 ‘메시지’가 아직 당신들의 그 아둔한 머리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당신들이 날 죽이려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소. 나는 내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을 얘기하지만, 그대들은 단지 그대들 아버지로부터 들은 대로 살고 있잖소?”

39-41 그들이 분개해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할 거요. 하지만 그대들은 지금,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진리를 말해 주는 나를 죽이려 들잖소? 아브라함은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았소. 당신들은 당신들 아버지가 했던 일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반복하고 있잖소?”

42-47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의 아버지라면, 당신들은 날 사랑할 거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땅에 온 거니까.... 내 맘대로 여기 온 게 아니란 말이오. 그분이 날 보내셨소. 당신이 왜 내 말을 단 한 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시오? 왜 그런지 내 알려 주리다. 당신이 내 얘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 즉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저 마귀를 기쁘게 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소. 마귀에게 진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기 때문에 진리라면 진저리를 치는 거요. 그 사기꾼은 자기의 거짓된 본성에 따라, 날조된 거짓말만 해대면서 그 거짓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버리지. 내가 지금 이렇게 드러내 놓고 단순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나와 함께하길 거부하고 있지 않소? 누가 내 말에서 한 마디라도 잘못된 걸 찾을 수 있겠소? 내 행동에서 최악된 걸 하나라도 찾을 수 있난 말이오?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대들은 도대체 왜 날 믿지 않는 거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 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질 않으니 지금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Who I Am)

48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이걸로 말 다 했구먼! 사람들이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내내 말해온 것이 다 맞는 말이었구먼 그래!”

49-51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미친 게 아니오. 당신이 날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난 그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라오. 내가 내 이득 챙기려고 이러는 게 아니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영광스럽고도 멋진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실행하려 하신다오. 난 정말이지, ‘완전 확실’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요.”

52-53 이 얘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알겠군. 당신은 미쳤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둥, 심지어 죽음을 맛볼 필요도 없다는 둥....’ 이런 소리나 해대니, 그럼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단 말이오?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요?”

54-5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내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겠지.... 하지만 내 아버지-소위 당신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날 지금 이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에 보내셨소.

그런데 당신들은 이 와중에도 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소. 하지만 난 아버지를 안다오. 내가 만약 겸손한 척하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난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나 역시 당신들처럼 한날 거짓말쟁이에 불과할 거요. 하지만 난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다오. 아브라함-소위 당신들의 '아버지'라는-은 환희에 가득 차, 믿음으로 역사의 흐름을 내다보면서 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봤다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환호했던 말이오."

⁵⁷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당신 나이가 아직 쇠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니.... 도대체 뭘 소리요?"

⁵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날 믿으시오. 아브라함이 있기 훨씬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who I am)요."

⁵⁹ 그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은 완전 코너에 몰리셨어요(뺨기를 박은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치려고 돌을 집어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새 빠져나와 성전을 벗어나셨죠.

9장

진짜 시각장애인은....

¹⁻² 예수님께서 길을 따라 내려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랍비님, 저 시각장애인은 누구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건가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인가요?"

³⁻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구나. 너희는 지금 누구를 탓할지만 찾고 있는데, 여기엔 그러한 인과관계('죄와 벌'의 인과관계-역자 주)가 있는 게 아냐. 대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잘 봐. 우리는 '날 이곳에 보내신 그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해. 해가 떠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한다구. 밤이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잖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밝게 비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6-7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흠에 침을 뱉어 진흙 반죽을 만드셔서 눈 위에 그 진흙 반죽을 발라 문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시오(실로암은 ‘보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그 사람이 가서 씻자, 정말 볼 수 있게 됐지 뭐예요!

8 곧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어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친척들이랑, 그가 수년간 시각장애인으로 구걸하며 사는 걸 보아온 사람들이

“세상에!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바로 여기 앉아 구걸하던 사람 맞아?”라고 했어요.

9 다른 사람들도 말했어요.

“맞아, 바로 그 사람이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부인했어요.

“그럴 리가? 그냥 닳은 사람이겠지.”

그러자 당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 맞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구요.”

10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요?”

11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 반죽을 만들어 내 눈 위에 문지르면서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시오’라고 하길래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어요!”

12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소?”

“나도 모르는데요?”

13-15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 반죽을 만들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다시 다그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분이 내 눈에 진흙 반죽을 붙여 주셨어요. 그 다음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습죠.”

16 몇몇 바리새인이 말했어요.

“그자가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걸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분명하오.”

하지만 일부는 반대의견을 표명했죠.

“어떻게 악인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यो?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어떻게 행하난 말ियो?”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어요.

17 그러더니 다시 시각장애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사건의 전모를 가장 잘 알지 않소? 그 사람이 당신 눈을 뜨게 해 줬는데, 당신은 그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분은 선지자죠!”

18-19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더 어이없는 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력을 회복하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신문했어요.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 맞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바로 그 아들 맞난 말ियो.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된 거요?”

20-23 그러자 그 부모가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 맞아요. 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것도 맞구요. 하지만 애가 어쩌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누가 이 아이 눈을 뜨게 해줬는지는 전혀 모른답니다. 애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그래요? 애는 이미 성인이고 자기가 직접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모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그래요? 애는 이미 장성한 성인인 걸요’라고 했던 거죠.)

24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2 차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인정하시오. 그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무슨 엉뚱한 소릴 하는 거요?”

25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나으리들 의견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전 전혀 모르겠군요. 다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내가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이젠 볼 수 있게 됐다는 것뿐입죠.”

26 그들이 말했어요.

“그자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소? 어떻게 당신 눈을 뜨게 해줬난 말ियो?”

27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라는 건가요? 아무리 애길 해도 듣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애길 왜 또 반복하라는 거냐구요? 나으리들도 그분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8-29 이 말에 모두 발끈해서 그 사람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당신은** 그자의 제자인지 몰라도, 우린 모세의 제자란 말ियो! 우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그자는 어디에서 굴러먹다 온 건지 전혀 모르니까....”

30-33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여러분이 전혀 모른다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줬으니 말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명령에 복종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지만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말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던 사람 눈을 누가 뜨게 해줬다는 얘긴 내 평생, 단 한 번도 들어 보질 못 한 걸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냐구요?”

³⁴ 그러자 그들이 말했어요.

“이런 쓰레기 같으니라구! 네가 뭔데 감히 그딴 식으로 우리에게 말해?”

그리고는 그 사람을 거리로 내쫓아 버렸어요.

³⁵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길 들으시고, 가셔서 그 사람을 찾아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인자(人子, the Son of Man)를 믿소?”

³⁶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선생님, 그분이 뉘신지 정확히 가르쳐주세요.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예요.”

³⁷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자라오. 내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겠소?”

³⁸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³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모든 것을 대낮의 밝은 빛 아래 드러내어, 확실히 구분하게 하기 위함이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게 만들어 주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볼 수 있는 척 위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온 것이라오.”

⁴⁰ 이 얘길 몇몇 바리새인이 엿듣고 말했어요.

“지금 당신, 우리더러 시각장애인이라고 한 거요?”

⁴¹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시각장애인이라면, 그걸로 책망받을 일은 없을 거요. 하지만 당신들은 ‘난 모든 걸 선명히 잘 본다’고 하니,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실책과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요.”

1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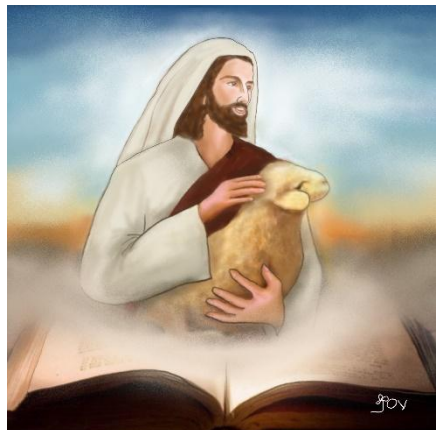
그분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

1-5 "내가 그대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겠소. 어떤 사람이 양우리로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거나 뚫고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십중팔구 썩 좋지 않은 사람-양 도둑-일 거요. 목자라면 양우리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겠소? 목자에게는 경비가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않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데리고 나온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 ^^) 그렇게 자기 양을 다 데리고 나와, 자기 양을 인도해 가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요.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이요. 하지만 낯선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그를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뿔뿔이 흩어진다고. 왜냐하면 그 음성이 낯설기 때문이지."

6-10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해 주셨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뭘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역시 복습이 최고의 학습법!^^)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소? 난 양들의 문이라고. 다른 이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저 양도둑들이지.... 하지만 양들은 양도둑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는 문이요. 날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봄을 받고, 자유롭게 드나들며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될 거요. 도둑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뿐이요. 나는 양들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왔소. 양들이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풍성하고 좋은 생명을 주려고 왔단 말이요.

11-13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보다 양들을 더 우선시한다고. 필요하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말이요. 하지만 삯꾼(고용된 일꾼)은 참된 목자가 아니기에 양들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면 제 한 몸 살겠다고 양들을 놔두고 도망가 버리지.... 늑대가 양들을 물어뜯고 흩어버려도 전혀 괘념치 않고 제 살 궁리만 한단 말이요. 삯꾼의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니까.... 삯꾼에게 양은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14-18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내 양들을 잘 알고, 내 양들은 날 잘 알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날 잘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잘 안다고. 나는 나 자신보다 양들을 우선시한다고. 필요하다면 나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말이요. 하지만

내게는 이 양우리 안에 있는 양들 외에도 다른 양들이 있음을 알아 주시오. 나는 그들도 모아서 데려와야 하오. 그들 역시 내 음성을 잘 안다오. 이렇게 해서 결국엔 모두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되는 거요. 내가 이렇게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니, 내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는 거요. 그리고 내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시는 거고.... 아무도 내게서 생명을 앗아갈 순 없소. 다만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일 뿐.... 나는 나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한도, 다시 찾을 권한도 있소. 이 권한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직접 주신 거요.”

19-21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 사이에 또 다시 논쟁이 벌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자는 미쳤어. 제 정신이 아니라구! 완전히 정신 나갔구먼! 우리가 저 미친놈 애길 왜 더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건 미친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걸? ‘미친놈’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겠어?”라고 했어요.

22-24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하누카(수전절-역자 주) 명절을 쇠는 겨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바짝 다가와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릴 헛갈리게 할 거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가타부타 속 시원히 말 좀 해 보시오.”

25-30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그대들은 믿지 않았소.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다 내 아버지께 위임받은 일ियो. 그동안 내가 행한 일들은 사실 말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말한 거였는데.... 그대들이 날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यो.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잘 안다오. 난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날 따라오지....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준다오. 그럼 그들은 파괴자로부터 영원히 보호받게 될 거요. 그들을 내 손에서 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소. 그들을 내 손에 맡기신 아버지는 그 어떤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 손에서 앗아갈 수 없단 말ियो. 나랑 아버지는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요.”

31-32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 엄청나게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 그대들에게 선물로 줬소. 그런데 지금 날 돌로 치려 한단 말ियो?”

33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바로 당신의 그 말 때문이요.”

34-3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된 그대들의 성경말씀을 인용해 말한 것뿐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신(gods)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조상들에게도 ‘신(gods)’이라고 하셨건만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그대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친히 구별해서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모독이다!’라며 소리를 질러대는 거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 이렇게 귀하고 선한 일을 내가 만약 하지 않았다면, 날 믿지 않아도 좋소. 하지만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봤으니, 내가 나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은 잠깐 미뤄 두고, 그대들 눈앞에서 내가 행한 일들을 증거로 삼아 판단해 보란 말이요. 그럼 모든 게 명백해질 거요. 그리고 우리(아버지와 아들)가 똑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냥 똑 같다’라는 것도 알게 될 거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란 말이요.”

39-42 그러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셨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요한이 처음 세례를 줬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머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들은 “요한이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분에 대해 얘기한 건 하나같이 다 실현됐어!”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11장

나사로의 죽음

1-3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네 동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을 향유로 마사지한 후, 자기 머리로 닦아냈던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병든 나사로는 그 마리아의 오빠였구요. 그래서 두 자매가 예수님께 전갈을 보냈어요.

“주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4 예수님께서 전갈을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될 거야.”

5-7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이상하게 나사로가 아프단 얘길 들으시고도, 계시는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대로 돌아가자꾸나.”

8 제자들이 말했어요.

“랍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랍비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로 돌아가시다니요?”

9-10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낮은 12 시간이잖아? 대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태양빛이 환하니,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단다. 하지만 밤에 돌아다니면 자기가 가는 길이 보이질 않으니 쉽게 걸려 넘어지지.”

11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겠다.”

12-13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님, 나사로가 잠든 거라면, 꼭 쉬고 잠에서 깰 때, 기분 좋게 일어나겠네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낮잠 얘길 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14-15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이쿠 이 고답이들...^^)

“나사로가 죽었어. 하지만 내가 거기 없었던 게 너희를 위해서는 잘 된 일이구나. 너희는 이제 새로운 믿음의 근거를 얻게 될 거야.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꾸나.”

16 그때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빨리들 가자구. 우리도 나사로랑 같이 죽어야 할 듯!”

17-20 예수님께서 그곳(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 일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됐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마을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그들이 오빠를 잃은 것을 애도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길 듣고 나가서 맞이했어요. 마리아는 그냥 집안에 그대로 있었구요.

21-22 마르다가 말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든 다 들어 주시리란 걸 알아요.”

23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빠는 살아날 거야.”

24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란 건 저도 알아요.”

25-26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것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설사 죽는다 해도 살게 될 거야.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절대 죽지 않아. 이걸 믿니?”

27 “네,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내 믿어온 걸요.”

28 마르다가 이 얘길 마친 후, 자기 여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귓속말로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오셨어. 지금 널 찾으시는구나.”

29-32 마리아가 그 얘길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를 만나신 곳에 아직 계셨어요. 마리아를 조문하러 온 유대인 친구들이 마리아가 달려나가는 걸 보고 따라나섰어요. 친구들은 마리아가 애곡하러 무덤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에 이르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말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흑흑흑)”

33-34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랑 마리아의 유대인 친구들이 함께 흐느껴 우는 것을 보시고, 속에서 깊은 괴로움이 솟구쳐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어디에 뒀지?”

34-35 “이리 와 보세요, 주님”

그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36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저것 좀 봐.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37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나сар가 죽기 전에 왜 손을 안 쓰신 거야? 시각장애인 눈도 뜨게 해 주신 분이 말야.”

38-39 그러자 예수님의 속에서 다시 괴로움이 솟구쳐올랐어요. 마침내 무덤에 도착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은 언덕에 있는 소박한 무덤이었는데, 돌 하나로 막아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 좀 치워 보시오!”

망자의 자매인 마르다가 말했어요.

“주님, 지금쯤이면 악취가 진동할 텐데요.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다고요!”

40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41-42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돌을 치우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어요.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애길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항상 제 애길 들어 주신다는 걸 압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애길 하는 것은, 여기 서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걸 믿게 하려는 거죠.”

43-44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러자 송장 나사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에 싸인 채, 그리고 얼굴도 천으로 덮인 채 나왔지 뭐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만드는 사람

45-48 이 사건으로 마리아와 함께 거기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어쩌면 종단 말이오? 그자가 하나님의 표적들을 만들어 내면서 계속 사고를 치고 있으니.... 이대로 놔 뒀다간 머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자를 믿게 될 거요. 그럼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권력이랑 특권마저 로마인들이 다 앗아가지 않겠소?”

49-52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지명된 가야바-이 소리 높여 말했어요.

“정말 모르겠소? 한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것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된다는 걸 모르겠단 말이오?”

가야바가 이 애길 한 건 자기 속에서 우러나서가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한 것이었어요. 즉 온 나라를 위해, 아니, 온 나라뿐만 아니라, 쫓거나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한 백성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죽음을 맞으실 거란 예언을 했던 거죠.

53-54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 불리는 광야 근처 시골 마을로 피해 가셔서 제자들과 따로 지내셨어요.

55-56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쇠러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일약 화제의 인물이 되셨어요.

“자네 생각엔 어떤가?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나타나실 것 같은가?”

57 그 사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얘기라도 낱알이 보고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죠.

12장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다.

1-3 유월절이 되기 6 일 전, 예수님께서서는 얼마 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셨어요. 나사로와 그 자매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죠. 그때 마리아가 아주 비싼 아로마 오일병을 들고 들어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예수님의 발을 마사지해 드린 후,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아 드렸어요. 아로마 오일향이 온 집안에 가득 퍼졌어요.

4-6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는 그때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오일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랬소? 그럼 못 받아도 은 300 냥은 받았을 텐데 말이요.”

하지만 실은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마음이 쓰여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유다가 도둑이었기에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유다는 공동자금 관리의 책임을 맡았었는데, 공금을 횡령하곤 했어요.

7-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좀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 마리아는 지금 내 장례식 날을 예상하고 그날을 미리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란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겠지만, 난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게 아니니까....”

9-11 예수님께서 마을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뿐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러 왔어요.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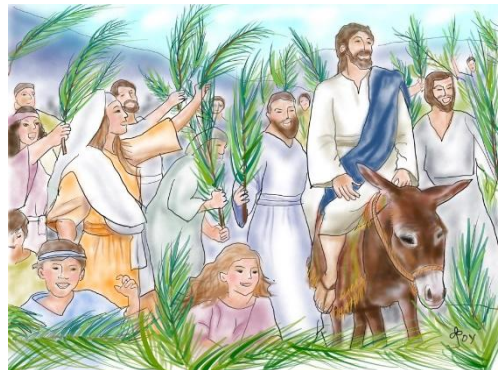
너희 왕이 오시는 걸 봐!

12-15 다음날, 명절을 쇠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야자수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환호했답니다.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송축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데려와 그걸 타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이에요.

*시온의 딸아, 두려워 말거라.
너희 왕이 어떻게 오시는지 보렴.
새끼나귀를 타고 오시는구나!*



16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이게 성경 이야기들의 성취였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것들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었죠.

17-19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격자 진술'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퍼레이드를 위해 쏟아져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맥이 풀려 말했어요.

"이젠 우리 손을 떠났소. 온 세상이 다 저자를 따르고 있구료."

밀알은 죽어야 한다.

20-21 거기엔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만남을 좀 주선해 주실 수 있나요?”

22-23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자,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소. 인자(人子, the Son of Man)가 영화롭게 될 시간이 다 됐단 말이요.

24-25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시오. 밀알 하나가 땅에 심겨져 완전히 죽지 않으면, 다시는 밀알로 거둢날 수 없대요. 하지만 땅에 심겨져 죽으면, 싹이 나고 수 배로 재생산을 하게 되지. 마찬가지로, 살겠다고 목숨을 움켜쥐고 아등바등하면, 그게 곧 목숨을 파괴하게 된대요.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목숨을 과감히 내려 놓으면,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요.

26 그대들 중 누구라도 날 섬기고 싶다면, 날 따라오시오. 그럼 나와 함께하면서 늘 섬길 자세를 갖게 될 거요. 날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친히 높여 주시고, 상도 주실 거요.

27-28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여기에서 절 보내주세요’라고? 아니지, 내가 온 궁극적 목적은 이것이라요. 그래서 난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라고 한대요.”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란다.”

29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천둥이 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방금 천사가 예수님께 말한 거야!”

30-33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내게 말한 게 아니고, 그대들에게 말한 거요. 지금 이 세상은 위기에 처해 있소.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이 이제 곧 쫓겨날 거요. 하지만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질 때, 모든 사람들을 함께 끌어올려 내 곁에 모을 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본인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34 군중 틈에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 계실 거라고 하나님의 율법서에서 배웠는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人子, the Son of Man)가 땅에서 위로 들어 올려질’ 필요가 있나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가 누군가요?”

35-3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동안은 그대들 가운데 빛이 있대요. 그러니 어두움이 그대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빛에 의존해 다니시오. 어두움 가운데 다니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소? 그대들에게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을 믿으시오. 그럼 그 빛이 그대들 안에 머물면서, 그대들의 삶을 환히 비쳐줄 거요. 그대들은 빛의 자녀라오.”

그들은 눈이 멀었다.

36-40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 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여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걸 이해하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 행동에 돌입하려 하셨건만 누가 알아봤단 말입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들이 믿으려 하지도 않았지만, 나중엔 믿을 수도 없었죠.

그들의 눈은 멀었고, 마음은 굳어졌구나.

이건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

하나님인 내게 돌아와 치유를 받지 않으려는 거구나.

41 이사야는 ‘하나님의 빛이 메시아를 통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잠깐 보고 나서 이 얘길 했던 거예요.

42-43 한편, 유대인 지도자급 인사들 상당수가 믿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 눈치를 보며 ‘커밍아웃’을 못하고 있었어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득권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더 신경 썼던 거예요.

44-46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여 (그동안 수업의) 총정리를 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단지 나만 믿는 게 아니고, 날 보내신 분을 믿는 거라오. 날 보는 사람은 사실 날 보내신 분을 보고 있는 거요. 나는 이 세상에 온 빛이요. 날 믿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해 온 빛 말이오.

47-50 내가 지금 하는 얘길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오. 내가 당신들을 거부한 게 아니오. 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 세상을 거부하러 온 게 아니니까.... 지금 내 얘길 거절하면서, 날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부’를 선택했음을 알아 두시오. 다른 어떤

말도 아닌, 내가 얘기한 '말씀', 나 자신인 '말씀', 육신이 된 바로 이 '말씀'이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요. 이 '말씀'들 중에 내 스스로 지어낸 얘기는 하나도 없소. 날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지시하셨다오. 그리고 난 아버지의 명령이 정확히 뭘 만들어 내는지 잘 알고 있소. 그건 바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만이 내가 할 말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오."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¹⁻²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친애하는 동역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마귀가 이때쯤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손아귀에 단단히 움켜쥐고, 예수님을 배신할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³⁻⁶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의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이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녁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겹옷을 벗어 옆에 놓으시고,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그러더니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앞치마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물었어요.

"아니, 주님이 제 발을 씻어 주시려고요?"

⁷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엔 분명히 이해하게 될 거야."

⁸ 하지만 베드로가 고집을 피웠어요.

"제 발은 씻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씻어 주지 않으면, 넌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

⁹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그럼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씻어 주시고, 머리도 감겨 주세요!"

¹⁰⁻¹²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목욕을 이미 했다면, 지금은 발만 씻으면 돼. 그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야. 알겠지? 이제 너희는 깨끗해. 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하진 않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하진 않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다음, 겹옷을 다시 입으시고 식탁에 돌아가 앉으셨어요.

12-17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방금 너희에게 해 준 일을 이해할 수 있겠지? 너희는 날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그 말이 맞아. 날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구. 내가 주님이고 선생님인데도 너희 발을 씻어 줬다면, 너희는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 줘야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하도록 해. 나는 확실한 것만 얘기하지. 종이 자기 주인보다 앞설 수 없고, 알바생이 사시각장애인한테 명령할 수 없잖아? 하지만 너희는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렴. 그럼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은 사람

18-20 “하지만 여기 있는 너희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냐. 다음의 성경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난 정확히 안단다.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은 자가
날 향해 발길질을 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말한 게 사실이었음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날 받아들이는 거야. 날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날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거고....”

21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아프신 게 역력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왜 마음이 아프신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날 배신할 거야.”

22-25 제자들은 두리번거리며 서로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의아해하면서 말예요. 제자들 중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셨던 한 사람이 자기 머리를 예수님 어깨에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애길 하고 계신 건지 여쭙 보라'고 눈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가 물었어요.

"주님, 지금 누구 애길 하고 계신 건가요?"

26-27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에 소스를 찍어 주는 사람이야."

그러시더니 빵에 소스를 찍어서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유다가 그 빵을 받아 들자마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일을 하렴. 어서 끝내라구...."

28-29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 중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몇은 유다가 일행의 회계를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명절 때 필요한 용품을 사라'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좀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30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아 들고 떠났어요. 그때는 밤이었어요.

새 계명

31-32 유다가 떠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인자(人子, the Son of Man)가 누구인지' 볼 수 있어. 그리고 인자 안에 계신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인자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께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실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야. 찬란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야."

33 애들아, 내가 너희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단다. 그 이후에 너희는 여기저기 날 찾으러 다니겠지. 하지만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말했듯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단다.

34-35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이것-'너희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36 시몬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³⁷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나요? 전 주님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건데요?”

³⁸ “정말? 날 위해 네 목숨을 바친다고? 넌 분명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텐데....”

14장

그 길

¹⁻⁴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그렇지? 그러니 나도 믿어야 해.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한 엄청 넓은 공간이 준비돼 있단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 방을 준비하러 가는 길’이란 말을 왜 했겠니? 이렇게 너희를 위해 방을 준비해 놓은 다음, 너희를 데리러 돌아와서, 내가 사는 곳에서 너희도 함께 살게 해 줄 거야. 너희는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

⁵ 도마가 말했어요.

“주님, 주님이 어딜 가시는지 저희 모르는데, 왜 저희가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⁶⁻⁷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야. 또 내가 진리고, 생명이지. 나와 별도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너희가 정말 날 잘 안다면, 내 아버지도 잘 알 거야. 지금 이 순간, 너희는 아버지를 알고 있어.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봤다구!”

⁸ 빌립이 말했어요.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⁹⁻¹⁰ “빌립아, 너희가 이렇게 나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 모르겠니? 날 보는 게 바로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란 질문을 하다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못 믿겠어? 내가 너희에게 해 주는 얘기들은 단순한 말이 아냐. 그 말들은 내 맘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구. 내 안에서 사시는 아버지께서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지.

¹¹⁻¹⁴ 날 믿어! 난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단다. 그걸 못 믿겠으면, 너희가 보는 것-이 모든 일들-이라도 믿으렴. 날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들도 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면서, 내가 해 온 일처럼 똑 같은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건 기대해도 돼. 지금부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맥락을 따라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게. 그게 바로 아들 안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모습이야. 정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건 뭐든 내가 다 해 줄 거야."

진리의 성령

15-17 "너희 나 사랑하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른 게 아니라, 내 말을 실천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할 또 다른 친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 친구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보는 눈이 없기도 하고, 그분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너희는 이미 그분을 알고 있잖아? 왜냐하면 그분은 내내 너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너희 **안에** 계실 테니까!



18-20 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돌아올게. 얼마 후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날 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희는 날 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난 살아있고, 너희도 곧 살아날 테니까. 그 순간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될 거야.

21 내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 말로 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거야. 또 나 역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거야."

22 유다(가룟 사람이 아닌)가 물었어요.

"주님,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만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안 보여주신다는 건가요?"

23-24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세상은 눈이 먼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지. 날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신중하게 잘 지킬 거고, 내 아버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실 거야.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 곁으로 이사 갈 거야.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도 지키지 않지.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메시지'는 내 것이 아냐. 이건 날 보내신 아버지의 '메시지'라구.

25-27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랑 같이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너희에게 해 주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요청 드러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그 친구-은 너희에게 모든 걸 훨씬 더 쉽게 가르쳐 주실 거야.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거야. 내가

너희의 안녕을 온전히 지켜 줄게. 그게 내 작별 선물이야. 평안 말야! 예전에 너희가 버려졌던 것처럼 다시는 그렇게 너희를 버려 두지 않을 거야. 다 빼앗기고 버림받고 슬프고 고독한 느낌이 들도록 너희를 내팽개치고 떠나지 않을 거라구. 그러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구.

28 내가 전에 한 말 잘 들었지? '내가 떠나지만, 다시 올 거다'란 얘기 말야.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기뻐하겠지. 왜냐하면 아버지야말로 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시니까.

29-31 내가 전에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줬지? 이 일이 일어나면, 이 일로 인해 날 향한 너희 믿음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왕이 곧 공격해 올 테니, 더 이상 너희랑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진 못하겠지만..., 걱정하지 마. 이 세상 왕은 아무 것도 아냐. 아무 힘도 못 쓴다구. (한 주먹 거리도 안 돼!^^)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아버지의 교훈을 세세한 것 하나까지 따르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게 해주려는 거야. 자, 일어나 가자. 여길 떠날 때가 됐구나."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1-3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란다. 내 아버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다 잘라 버리시지. 하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 주셔. 너희는 내가 얘기한 '메시지'로 이미 가지치기를 했어.

4 내 안에서 살거라. 내가 너희 안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살란 말야.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순 없지.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5-8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랑, 내가 너희랑 붙어 있으면, 너희는 나랑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돼 있어. 하지만 나랑 단절돼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 나랑 단절된 사람은 다 죽은 가지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땔감으로 불 속에 던져 넣잖니? 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편안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편안히 머문다면, 너희가 뭘 구하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가면,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너희에게 보여 주실 거야.

9-10 내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단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편히 지내도록 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친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나 역시 그렇게 했단다.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편하게 지냈다고!

11-15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데엔 다 이유가 있어. 그건 다름 아닌,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어, 너희 기쁨이 완전히 무르익게 해 주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해. 최고의 사랑은 이거야. “바로 목숨 바쳐 친구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야.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생각이나 계획을 모르니까.... 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 줬어. 그래서 너희가 내 친구라는 거야.

16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썩지 않는 열매를 맺도록 너희를 세상에 남겨 두는 거야. 열매 맺는 자로서, 너희가 아버지께 뭘 구할 때, 나와 의 연줄을 이용하면, 그게 뭐든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거야.

17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계명은 꼭 기억하도록 해.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할 것!”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거야.

18-19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건 바로 날 미워하는 거란 걸 기억해. 너희가 세상 방식대로 살면, 세상도 너희를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겠지. 하지만 내가 너희를 선발한 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살라’는 이유에서였어.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20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걸 기억해. ‘좋은 자기 주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말야. 그들이 날 때리는데, 하물며 너희는 안 때리겠니? 그들이 내 애길 따랐다면, 너희 애기도 당연히 따르겠지.

21-25 사람들이 ‘날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나랑 똑 같이 취급하는 거야.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겠지만, 내가 와서 이미 다 설명해 줬으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날 미워하는 거나,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나 결국은 다 똑 같은 거니까. 만약 내가 그들에게 한 일들-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 사상초유의 일들-을 아예 안 했다면, 그들도 비난 받을 이유가 없겠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했으니....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날 미워했다'라고 자신들의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으니, 그들 스스로 그 진리의 성경말씀을 입증한 셈이지. 정말 웃기지 않니?

26-27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친구-아버지가 보내신 진리의 성령-가 오시면, 그분이 나에 관한 모든 걸 확증해 주실 거야. 너희도 처음부터 내내 나랑 함께했으니, (나에 관한 모든 걸) 너희 입장에서 증언해 주기 바래!"

16장

1-4 "내가 너희한테 이 애길 해 주는 건 '앞으로 닥칠 힘든 시기를 준비하라'는 뜻에서야.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거야. 또 자기 댄에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거야. 그들이 이런 일을 감행하는 건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언젠가 그들이 이런 일을 너희에게 행할 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미리 대비하라'는 뜻에서 내가 이 애길 해주는 거야. (유비무환 알지?^^)

그 친구가 오실 거야.

4-7 그동안 내가 이런 애길 해 주지 않은 이유는 내가 매일매일 너희와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은 날 보내신 분께 내가 가야 하니....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요?'라고 묻질 않는구나. 내가 이런 애길 하면 할수록 너희는 점점 더 슬퍼하기만 할 뿐....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해 줄게. 너희에게는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왜냐하면 내가 안 떠나면, 그 친구가 오시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가야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으니, 그게 너희에게 너 낫다는 거야.

8-11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①죄(sin)와 ②의(righteousness)와 ③심판(judgment)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실 거야. 즉 ①가장 근본적인 죄(sin)는 '날 믿지 않고 거부한 것'임을, ②의(righteousness)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 바로 저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그들이 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것'임을, (그들 소관이 아니지) ③심판(judgment)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을 때 이루어질 것'임을 그분이 보여주실 거란 말이지.

12-15 내가 너희한테 해 줄 말이 아직도 너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들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구나....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신 그 친구가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손을 잡고 진리에게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 친구는 자기가 관심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실 거야. 그동안 내가 말하고 행한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실 거라구. 그 친구는 날 영화롭게 하시고, 내 걸 가져다가 너희에게 전해 주실 테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란다. 그래서 '성령이 내 걸(즉, 아버지 걸-역자 주) 가져다가 너희에게 전해 주실 거'라는 거야.

16 이제 하루 후면 더 이상 날 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머잖아 곧 날 다시 보게 될 거야."

내게 샘 솟는 기쁨~! ♪

17-18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은 마치 별집 쭉서 놓은 것처럼 들썩였고, 질문이 쇄도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제 하루 후면 더 이상 날 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머잖아 곧 날 다시 보게 될 거야'라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는 말씀은 또 뭐꼬? '머잖아'라면 얼마 동안이라는 걸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구먼...."

19-20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란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루 후면 더 이상 날 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머잖아 곧 날 다시 보게 될 거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지? 그럼 이걸 마음 속에 단단히 새겨 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축하 파티를 벌이며 흥청망청 놀 때, 너희는 애도하게 될 거야. 너희는 정말 정말 슬퍼할 거야. 하지만 그 슬픔은 곧 기쁨으로 변하게 될 거야.

21-23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제정신이 아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넘치잖아?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새생명으로 인해 고통의 기억은 씻은 듯이 사라지지. 너희가 지금 느끼는 슬픔은 그렇게 아기를 낳는 고통과 같은 거야. 하지만 앞으로 올 기쁨 역시 아기를 낳은 기쁨과 같지.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땐, 너희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할 거야.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을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 모든 의문도 다 풀릴 거고.

23-24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이거야.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준 원칙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도록 해!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구하면, 분명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그럼 너희 기쁨이 솟구치는 샘물처럼 충만할 거야.

25-28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비유를 써서 너희한테 얘기했지만, 이제 곧 직설적으로 더 쉽게 아버지에 대해 얘기해 줄 때가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이 삶과 관련된 것을, 너희도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때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바로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기로 헌신했다'는 이유로 사지로 내몰렸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야. 전에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온 것처럼, 이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는 거야."

29-30 제자들이 말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즉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귀결된다'는 것을 알겠어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요."

31-33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나를 믿는 거니? 하지만 너희는 제 한 목숨 살자고, 날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그렇다고 내가 버림 받는 건 아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시니까. 내가 이 애길 다 해 준 것은, 너희가 날 믿음으로써,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계속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지만 용기를 내! 내가 세상을 이미 정복했으니까...."

17장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1-5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때가 되었네요.

당신 아들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이로써 아들이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간사의 책임을 아들에게 맡기셨죠.

아들이 자기 책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심'을 아는 게 곧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죠.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임무를 마지막 하나까지 다 완수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저를 영화롭게 해 주세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제가 누리던 바로 그 영광으로 저를 영화롭게 해
 주세요.

6-12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을 제게 주셨고,
 그 결과 지금은 그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해냈지요.

그들은 이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직접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를 제가 그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었죠.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사람들이니까요.

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제 것이에요.

그리고 제 생명이 그(아버지의 모든 것) 안에서 나타났죠.

이 세상은 저를 더 이상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제가 아버지께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이 세상에 계속 머물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이 이 생명을 추구할 때, 그들을 지켜 주세요.

이 생명은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 생명은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선물이죠.

아버지와 제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것처럼 그들도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말이에요.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제가 그들을 지켰어요.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생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는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지켰지요.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반역으로 인해 파멸에 이른 한 사람만 빼고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은 성경의 예언을 입증했지요.)

13-19 이제 전 아버지께 돌아가요.

저는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 사람들 안에서 제 기쁨이 온전해지는 것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것(제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그들 역시 세상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지금 아버지께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길'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께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저를 제한할 수 없듯이 세상은 이제 그들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고 성스럽게 해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 진리'잖아요.

아버지께서 제게 이 세상에서 수행할 임무를 주신 것처럼

저 역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수행할 임무를 주겠습니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을 위해 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3 저는 지금 그들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차 저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이 저에 대해 하는 증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라구요.

제 기도의 목표는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죠.

바로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 역시 우리(아버지와 저)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세상도 '아버지께서 정말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줘요.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이 하나됨으로 인해 성숙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절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증언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24-26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에서, 저와 함께함으로써, 제 영광,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께서 세상이 있기 한참 전부터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만 있다면....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았죠.
 제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이 임무를 수행하라고 저를 보내셨음'을 알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그들 안에 머무름으로써,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죠."

18장

밤에 동산에서 잡히시다.

¹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동산 쪽으로 가셔서,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²⁻⁴ 예수님의 배신자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에도 그곳에 종종 갔었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로마 병사들과 경비병들을 동산길로 안내했어요. 그 뒤를 바리새인들이 따랐구요. 그들은 등불과 횃불, 그리고 검을 들고 그곳에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미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잡으러 왔소?"



그들이 대답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를 잡으러 왔수다.”

5-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요.”

그러자 병사들이 놀라서 주춤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배신자인 유다가 눈에 띄었어요.

7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누구를 잡으러 온 거요?”

그들이 대답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요.”

8-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하지 않았소? 내가 바로 예수요. 당신들이 찾는 건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내 주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람을 단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도하신 내용의 성취였어요.)

10 바로 그때, 검을 들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칼집에서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어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어요.

11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검을 도로 꽂거라. 설마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12-14 그때 명령을 받은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아 포박했어요. 그리고는 일단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어요.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는 바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으면 유익한 일’이라고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예요.

15-16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재판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자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경비에게 얘기해 베드로를 들여보내 줬어요. (2 천년 전에도 연줄이 없으면..., ^^)

17 경비를 서던 한 젊은 여인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아저씨도 저 사람 제자 아니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지금 뭘 소릴 하는 거요? 난 아니요.”

18 종들과 경비병들은 날씨가 추워서 웅기종기 모여 불을 켜면서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틈에 서서 불을 켜고 있었죠.

신문

19-21 안나스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신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는 늘 공개적으로 말했소.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에 가르쳤단 말이요. 모든 걸 드러내 놓고 공개적으로 가르쳤소. 비밀리에 가르친 건 하나도 없소. 그런데 왜 날 마치 무슨 모의자나 되는 양 취급하는 거요? 내 얘길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시오. 그들이 내가 무슨 얘길 했었는지 잘 알고 있을 테니.... 언제나 난 숨김없이 오픈해서 가르쳤단 말이요.”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거기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며 말했어요.

“이분이 누군 줄 알고, 감히 너 따위가 대제사장님께 이렇게 건방지게 말해?”

2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틀린 말 한 게 있다면 증거를 내놔 보시오. 난 진실만을 투명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나를 치는 거요?”

24 그러자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어요.

25 그 사이, 시몬 베드로는 뒤쪽 불 곁에서 여전히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아저씨도 저 사람 제자죠?”

하지만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아니라니까?”

26 베드로에게 귀가 찢렸던 사람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이 말했어요.

“당신, 그 사람이랑 같이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27 하지만 베드로는 또 다시 부인했어요. 바로 그때 닭이 울었어요.

유대인의 왕

28-29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궁으로 끌고 갔어요. 그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감으로써-역자 주) 부정해져서 유월절 식사를 못하게 될까 봐 총독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말했어요.

“이 사람을 무슨 죄목으로 데려온 거요?”

30 그들이 말했어요.

“이자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우리가 뭐하러 갠스리 총독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요?”

31-32 빌라도가 말했어요.

“이자를 데려가서, 당신들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걸요?”

(이로써 예수님이 전에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말씀하셨던 게 성취됐어요.)

33 빌라도가 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물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34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어요.

“총독은 이 말을 자기 판단 하에 하는 거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 말해준 거요?”

35 빌라도가 대답했어요.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요?)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오? 당신 동족이랑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겨준 거 아니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요?”

36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어요.

“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오. 만약 그랬더라면, 내 추종자들이 날 유대인들 손에 넘기지 않으려고, 투쟁해서 날 지켰을 거요. 난 그런 류의 왕이 아니오. 세상의 왕과 같은 부류가 아니란 말이오.”

37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어요.

“총독이 말하고 있잖소? 나는 왕이오.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온 거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또 진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감을 잡은 사람이라면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요.”

38-39 빌라도가 말했어요.

“진리가 뭐요?”

그러더니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난 이 사람에게서 잘못을 못 찾겠소.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사면해 주는 게 당신들 관례니, 이 ‘유대인의 왕’을 사면해 주면 어떻겠소?”

⁴⁰ 하지만 사람들이 외쳤어요.

“이 사람 말고 바라바를 사면하시오!”

바라바는 유대 독립운동가였어요.

19장

왕을 위한 가시 면류관

¹⁻³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병사들이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는, 예수님께 자주색 겹옷을 입히고, 다가가 말했어요.

“유대인의 임금님! 만세!”

그리고는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늉을 했어요.

⁴⁻⁵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당신들에게 내 주긴 했지만, 난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이나 죄목을 찾지 못했다는 걸 알아 줬으면 좋겠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주색 겹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빌라도가 공포했어요.

“여기 있소. 바로 그 사람이....”

⁶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광분해서 외쳤어요.

“십자가에 처형하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데려가서, 직접 십자가 처형을 하시오. 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못 찾겠소.”

⁷ 유대인들이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르면 이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죄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⁸⁻⁹ 빌라도는 이 얘길 듣고, 더 겁이 났어요. (후덜덜~^^) 그래서 궁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에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¹⁰ 빌라도가 말했어요.

“당신 아무 말도 안 하기로 작정한 거요? 당신을 사면해 줄 권한도,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내게 있다는 걸 모르겠소?”

¹¹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총독의 권한은 다 하늘이 주신 거요. 하늘이 주신 권한 말고는 그 어떤 권한도 총독에게는 없소. 그래서 날 배신해 총독에게 넘긴 자의 잘못이 훨씬 더 큰 거고....”

¹²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면해 보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외침에 빌라도의 목소리는 묻혀 버리고 말았어요.

“총독님이 이자를 사면해 주면, 총독님은 가이사 편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이사를 거역하는 거니까요.”

¹³⁻¹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박석(넓고 얇게 뜯은 돌로 바둑판 모양으로 포장한 장소-역자 주)’이라는 법정(히브리어로 ‘가바다’)의 판사석에 앉았어요. 그 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고, 때는 정오였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당신들 왕이 있소!”

¹⁵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빌라도가 말했어요.

“당신들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처형하란 말ियो?”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밖에 없습니다!”

¹⁶⁻¹⁹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고 말았지요.

십자가 처형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해골 언덕(히브리어로 ‘골고다’)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두 사람이 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빌라도는 팻말을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했어요.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20-21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시내 근교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팻말을 볼 수 있었어요. 팻말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희랍어)로 기록되었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이의를 표명하며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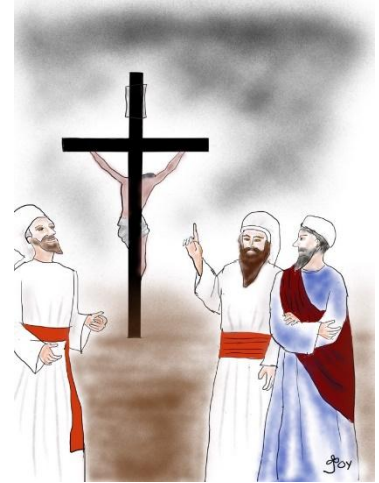
22 하지만 빌라도가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썼으면, 그걸로 된 거요.”

23-24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네 갈래로 나눠 각자 하나씩 가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겹옷은 전체를 하나로 짠, 술기가 없는 옷이라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갖기로 하자구.”

이로써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라는 성경말씀이 성취됐어요.



24-27 병사들이 이렇게 자기 앞에 큰 감 놓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랑, 이모랑,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랑,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 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시여, 여기 아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여기 너희 어머니가 계시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28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걸 보시고, 성경의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이 타는구나!”

29-30 그 옆에 신 포도주병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신 포도주를 스폰지에 적셔서 창 끝에 매달아 예수님 입가에 올려 드렸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그 포도주를 받아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됐어..., 다 이루었어!”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시며 자기 영혼을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31-34 그날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특히 그날은 1 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이었거든요)동안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않기 위해, ‘죄수들이 빨리 죽도록 다리를 부러뜨린 후, 시신을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로 부러뜨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로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걸 보고 예수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병사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³⁵ 이 일은 목격자가 정확히 증언한 거예요. 이 목격자는 독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본 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³⁶⁻³⁷ 이 일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말씀의 성취였어요.

‘그분 시신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가 찌른 분을 바라볼 것이다.’

³⁸ 이 모든 일 후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비밀리에 제자가 되었던)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빌라도가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어요.

³⁹⁻⁴²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제는 드러내 놓고 몰약이랑 알로에 혼합물을 약 35kg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후, 유대인의 장례절차에 따라서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로 쌌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 근처에 동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그날이 유대인의 안식일 준비일이기도 했고, 또 그 무덤이 가깝기도 해서, 그들은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어요.

20장

부활!

¹⁻²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 여명의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입구에서 옮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곧 바로 숨이 턱에 차도록 급히 시몬 베드로랑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무덤에서 주님 시신을 가져갔어요. 도대체 어디로 치웠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3-10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렸죠. 경주 결과는 다른 제자의 승리! 그가 베드로를 앞질러 결승점에 먼저 도착했답니다!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곳에 놓여 있는 세마포천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제자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잠시 후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도착은 늦었지만, 입장은 더 먼저! 역시 거침없는 성격의 베드로!^^) 그리고 거기에 세마포천이랑 머리를 싼 두건이 각각 단정하게 접혀져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원래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가(본인의 달리기 실력을 끝까지 강조하는 요한! '금메달은 원래 내 거였는데...', ^^)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증거를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성경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제자는 집에 돌아왔어요.

11-13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두 명이 거기 앉아 있지 않겠어요? 한 명은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던 곳의 머리 쪽에, 다른 한 명은 발 쪽에 앉아 있었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여인이여, 왜 울고 있소?"

13-14 마리아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데려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네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한 후 돌아서자,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5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왜 울고 있소? 누구를 찾는 거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원사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만약에 아저씨가 그분을 데려갔다면, 어디에 뒀는지 말해 주세요. 전 그분을 돌봐 드려야 한단 말예요."

1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돌아보며,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랍오니!"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17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매달리면 안 되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주렴. '내가 내 아버지이자,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자,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18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내가 주님을 봤어요!'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믿는다는 것

19-20 그날 늦게,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그리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20-21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자,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마."

22-23 그리고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시더니 제자들을 향해 다시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길!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영원히 사라진단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죄만 보유하고 사는 거지."

24-25 그런데 12 제자 중 하나인,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봤어'라고 얘기해 줬어요.

하지만 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뭘 소리야? 주님 손의 못 구멍을 내가 직접 보고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는 한, 그리고 주님 옆구리를 내 손으로 직접 만져 보지 않는 한, 난 도저히 못 믿겠다!"

26 8 일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방 안에 있었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잠겨진 문을 통과해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27 그리고는 도마를 주목해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직접 검사해 보렴. 네 손으로 내 옆구리도 만져 보고! 그런 불신의 태도를 버리고, 믿으렴!"

28 그러자 도마가 말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2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눈으로 직접 보니까 비로소 믿는구나.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축복이 마련돼 있단다.”

30-31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들’이 너무 많아, 비록 이 책에 다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이걸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 = 메시아 =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이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길을 통해, 여러분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21장

바다 낚시

1-3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엔 디베라 바다(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죠. 그때 시몬 베드로, 도마(별명은 ‘쌍둥이’),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 세베대 형제,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3-4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형, 우리도 같이 가!”

그래서 모두 나가서 배를 탔지만...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해가 떠오를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아침으로 먹을 걸 좀 잡았는가?”

그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6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게나.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라구.”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몰려들었어요. 힘이 달려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말예요.

7-9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맞네, 주님 맞다구!”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급히 옷을 걸쳐 입고는 바다로 다이빙해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일하느라고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서 썩 멀지 않은 곳(약 100m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배로 다가가 물고기가 꽉 찬 그물을 함께 끌어 올렸어요. 배에서 내리자, 불이 피워져 있는 것과 그 불에 구운 물고기와 빵이 보였어요.

10-11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방금 잡은 물고기 몇 마리만 갖고 오렴.”

시몬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 그물을 끌어 올렸더니, 거기에 큰 물고기가 153 마리나 있었어요! 더 신기한 건, 그 많은 물고기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12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침들 먹게!”

제자 중 어느 누구도 ‘누구시운데...?’라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았거든요.

13-14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물고기도 나눠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살아 계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이번이 세 번째였어요.

너 나 사랑해?

15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더 날 사랑해?”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 좀 잘 먹여 줘.”

16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 좀 잘 돌봐 줘.”

17-19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째 또 ‘너 나 사랑해?’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주님, 주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꼭 알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 좀 잘 먹여 줘. 이제 내가 사실을 얘기해 줄게. 네가 젊었을 때엔 너 스스로 옷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네가 이제 나이 들면, 넌 그저 두 팔을 벌린 채로, 다른 사람이 너한테 옷을 입히고, 네가 원치 않는 데로 데리고 갈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힌트를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하셨습니다.

“날 따라오거라.”

20-21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도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재~~는 어떻게 되나요?”

22-23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를 살려 둔다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넌,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이 말씀 때문에 나중에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루머가 퍼지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를 살려 둔다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어요.

24 그 제자가 바로 이 모든 걸 다 목격하고 이 책을 쓴 장본인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목격과 증언이 정말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25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외에도 엄청 많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낱알이 다 기록하자면, 그 많은 책을 소장할 만큼 큰 대형도서관을 세울 땅이 이 세상엔 도저히 없을 것 같군요. (미국 의회도서관이라든가 퍽도 없어요!^^)